

전남 서부권 공립특수학교 신설한다

교육부 ‘온미래학교’ 최종 승인…도교육청, 옛 일로초 죽산분교장 부지에 2029년 개교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 아동 인권 향상을 위한 전남지역 특수학교의 시설 확충을 권고하고, 광주일보가 특수학교 학생들의 열악한 통학 여건 개선의 필요성<광주일보 4월 24일 7면>을 제기한 가운데 전남 서부권 공립특수학교 신설 계획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열린 2025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전남도교육청이 서부권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제출한 가칭 온미래학교 신설안이 최종 승인됐다.

이번 신설 계획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꾸준한 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열악한 전남 서부권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전남 지역

특수교육대상자는 16.2% 증가했으며, 특히 목포·무안 지역은 2020년 대비 26.8%나 늘어났다.

현재 서부권에는 특수학교가 부족, 전공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해마다 정원 초과로 탈락하는 등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 특수학교 신설을 본격 추진했다.

온미래학교는 옛 일로초 죽산분교장 부지에 고등학교 6학급, 전공과 8학급 규모로 신설한다. 총사업비는 450억원이다. 오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해당 용지는 남악신도시 3단계 개발 예정 택지지구에 위치, 도심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전남도교육청은 서부권 기존 사립 특수학교의 경우 유·초·중학교 학급을 확대 운영하고, 온미래학교는 고등학교와 전공과 과정을 맡는 방식으로 특수교육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남 특수교육의 질적 도약을 이끌 방침이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온미래학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가능성과 꿈을 펼칠 수 있는 맞춤형 공간”이라며 “서부권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통해 특수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공정하게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한강 작품과 함께…제3회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

5월 31일~6월 1일 중심사 일원…‘소년이 온다 문학기행’ 등 다채

무등산과 동구의 인문자원을 결합한 ‘인문학 축제’가 열린다.

광주시 동구는 오는 5월 31일~6월 1일 이틀간 무등산 중심사지구 일원에서 ‘제3회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를 연다.

행사는 ‘인문 For:rest’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올해 솔로전인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속 구절을 인용한 ‘꽃 핀 쪽으로 뺨짝, 희망으로 뽀짝!’이다.

동구는 총 예산 3억 1000만원을 투입해 전체 6개 테마에 34종 62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축제에 앞서 오는 5월 30일부터는 3박 4일에 걸쳐 ‘소년이 온다 문학기행’ 행사를 추진한다. 일본 주요 언론사 기자와 시민 등 80여 명과 함께 무등산

인문축제장 및 5·18유적지를 돌아보는 행사다.

중심사지구탐방센터 일원에서는 한강작가 특별전 ‘한강의 숲에서’가 운영된다. 특별전에서는 지역 작가들이 참여해 한강의 텍스트와 사진으로 구성한 전시를 볼 수 있다.

명사들의 인문강연을 듣는 ‘명사초청 인문토크’는 5월 31일~6월 1일 양일간 진행되며, 김탁환 소설가, 최병수 설치미술가, 이금이 작가, 최향랑 작가의 강연을 차례로 선보인다.

5월 31일에는 ‘무등산인문행진’ 행사도 열린다. 광주시민 등 200여명이 사전 제작된 무등산 동물인형모자를 쓰고 학운초→무등산 산책길→전통문화관→주무대(1.7km)를 걷는 행사다.

같은 날 전통연희놀이연구소는 전통문화관에서

김놀이 ‘무등산 호랑이’를 펼치고 극단 토박이는 오월극 ‘오! 금남식당’을 공연한다.

6월 1일에는 무등산을 오르며 의재, 석아, 오방, 현덕신 등 광주 인물의 역사를 뮤지컬로 감상하는 장소특정형 공연 ‘시간의 숲, 무등’이 관객들을 만난다. 끝으로 기후환경 메시지와 예술을 결합한 이승규 작곡가와 플라스틱 파르렛의 폐막 공연이 준비돼 있다.

정봉남 무등산 인문축제 총감독은 “이 밖에도 무등산 상가지구에서 진행되는 추억의 보물찾기, 무등산 동물인형 만들기, 편백숲 생명다양성 대탐사 등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해 행사를 풍성하게 꾸려 나가겠다”며 “축제 기간 동안 편백숲 새끼 두꺼비 대이동을 고려하는가 하면 탐블러 사용을 권장하는 등, 환경과 공생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외국인노동자 상습 폭행 축산농장주 구속

퇴직금·야근 수당 등 임금 체불

외국인노동자를 폭행하고 임금을 체불한 영암군의 돼지 축산농가 농장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28일 영암군 축산농가 농장주 A(44)씨를 폭행,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 노동자 B(28)씨를 비롯한 외국인노동자 10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사업장에서 6개월간 일했던 B씨는 지난 2월 22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B씨의 동료 노동자들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받

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폭행, 근로기준법 위반, 강요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A씨가 노동자들의 실수를 이유로 모욕적인 언행과, 먹살을 잡고 불펜으로 가슴을 찌르는 등의 폭행을 반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과 야근 수당 등 임금을 체불했다는 점도 담겼다.

영암경찰은 A씨의 강요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 이달 중순께 별도로 송치했다.

조창익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까지 이뤄진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노동계와 법조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여수 해상 실종 선원 수색 종료

실종 5명 중 2명 수습

전남도는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 제22서경호 실종 선원 수색 작업을 종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도는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예비비 10억원을 투입해 침몰 해역에서 지난날 23일부터 수중 수색작업을 벌였다.

수색 작업은 지난 27일까지 총 14차례 잠수사를 투입해 선체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작업도 종료됐다.

서경호는 지난 2월 9일 새벽 여수 거문도 동쪽 약 20해리 해상에서 침몰했다. 침몰 당시 승선원 14명 중 4명이 구조되고, 5명이 숨졌으며 5명은 실종됐다. 선체 수색으로 2명을 추가 수습했지만, 나머지 3명은 실종 상태로 남게 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우거진 나무 변신 중 28일 오후 광주시 서구 쌍촌동 상무민주로 인근에서 환경업체 관계자들이 도심 구조물 안정과 경관 조성을 위해 가지치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건조주의보…바람까지 강해 산불 조심

당분간 광주·전남 지역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2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9일 광주·전남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제주도남쪽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5~10도, 낮 최고기온은 18~24도로 평년(최저 6~12도, 최고 19~23도)과 비슷하거나 낮을 전망이다.

광주와 전남 곳곳에 내려진 건조주의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8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광주·곡성·구례·여수·광양·순천·장흥·강진에 건조주의보를 발령한 상

태다.

기상청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커질 수 있겠으니 화재 등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제95회

춘향제

남원

춘향의소리 세상을 연다

2025. 4. 30. (수) - 5. 6. (화)

광한루원 및 요천변 일원

주최 남원시 주관 춘향제전위원회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동해축제 2025 K-SHOPPING FESTA

4월 30일(수)

- 춘향선발대회
- 남원의소리
- 버스킹
- 시니어춘향선발대회
- 문화관광축제포럼(4.29.-30.)

5월 1일(목)
(근로자의 날)

- 개막식
- 춘향제향
- 일장춘몽콘서트 I
- 불꽃놀이

5월 2일(금)

- 일장춘몽콘서트 II
- 남원의소리
- 어린이 대상공연
- 세계민속공연단

5월 3일(토)

- 대동길놀이①
- 보물위의 소리①
- 제52회 춘향국악대전
- KBS 국악한마당
- 댄스경연대회(창작)

5월 4일(일)

- 대동길놀이②
- 보물위의소리②
- 제52회 춘향국악대전
- 일장춘몽콘서트III
- 댄스경연대회(k-pop)
- 세계우호도시공연

5월 5일(월)
(석가탄신일)

- 어린이날 행사
- 대동길놀이③
- 보물위의 소리③
- 일장춘몽콘서트IV
- 제52회 춘향국악대전
- 밴드경연대회(본선)
- 해외교류공연

5월 6일(화)
(어린이날 대체휴무)

- 대동길놀이④
- 폐막식
- 보물위의소리④
- 불꽃놀이
- 밴드경연대회(결선)